괴테클럽 독서 감상문

작성자	김승혁	**토론일**	'22.07.01
도서명	데미안	**저자**	헤르만 헤세
별점	4.5/5		
만족스러운 점과 아쉬운 점	후반부 전쟁 참여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느낌이 아쉬웠다.		
한줄평	왜 성장 소설의 대표작 중 하나인지 알 수 있는 책!		

기억에 남는 표현이나 문장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감상

이 작품을 읽으면서 선과 악, 옳고 그름에 대한 내 생각을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작품이다. 우리는 흔히 선과 악, 옳고 그름에 대해 다분히 이분법적으로 흑백논리적으로 정의한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분법적으로 나뉠 수 있을까? 단순히 관점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옳고 그름의 차이는 크게 차이 날 수밖에 없다. 데미안은 싱클레어 즉 독자들에게 맹목적인 믿음과 선과 악에 대해 경고하며 선과 악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넓힌다. 작가는 데미안, 에바 부인, 피스토리우스 등을 통해 싱클레어 즉 독자들이 사회와 외부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끌려 다니는 사람이 아닌 자신이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요구한다. 하지만 후반부 부분에 전쟁과 참전의 부분에선 이야기에서 한계를 드러내는 것 같다. 이야기 전개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고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일이지만 둘 다 당시 지식인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생들이 전쟁이 발발할 거 같은 상황에서도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 전쟁이 발발 후 바로 참전하는 모습 등에서 전쟁을 불가항력적인 사건 또는 전쟁에 참전하는 것과 그 후 발생하는 사건들에 대하여 면죄부, 합리화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2차 세계대전에 관해 모든 추축국(전범국) 국민들이 죄책감을 가지고 사죄하고 다닐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합리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은 선과 악의 정의와 판단, 자아의 성장,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는 완벽할 정도의 통찰력과 성장 원동력을 제공한다. 하지만 후반부 패전국 입장에서의 참전의 정당성, 합리화를 시키는 거 같아서 어떻게 보면 세계대전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청소년의 자아의 성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고 설령 성인일지라도 자아 성찰과 선과 악의 정의라는 부분에서는 대체제가 없는 작품인 거 같다.